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39호

창조절 넷째 주일

2020년 9월 27일

예배시간 09:30

은 누리에 창조의 역사가 | 김호중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주를 높이나이다(D. zipoli)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73장(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위에 걸터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사 42:5), 우리가 함께 주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사 65:18),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시다(시 89:12).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회 중: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목 사: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회 중: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목 사: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회 중: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목 사: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회 중: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할렐루야!(시 78:1-4, 12-16).

경배찬송 408장(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욥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응답송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주여 용서하소서(경동찬송 38장) 다함께
주여 용서하소서 뉘우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온 세상 사람들아(경동찬송 16장) 다함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나라들아 주 찬양하여라

말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7:1-7 박연길 목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 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건너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 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트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곳의 이름을 맛사라고도 한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1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을 담은 샘물 같아
 마음에 품고 마실 때 마다 새 삶의 희망 솟아나네

서신의 말씀

빌립보서 2:1-13 **박선교 목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2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의 병을 고쳐주네
 고통에 지친 영혼이라도 다 나아 기뻐 노래하네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21:23-32 **목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

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 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3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새날을 여는 햇빛 같아
마음 문 열고 맞아들이면 근심과 어둠 사라지네

친교와 소식

기도

응답송

특송

설교

기도

목사

김남강 장로

오르가니스트

나 같은 죄인 살리신(Traditional American Melody) 김홍태 집사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채수일 목사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봉헌기도

*보냄찬송

*축도

*송영

후주

455장(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목사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목사

오르가니스트

주 음성 외에 더 기쁨 없도다(R. Lowry)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출산: 문제선 교우 · Pawan Shign(Sera Singh / 문세라[딸], 9월 5일(토))

2. 모임

▶당회: 10월 11일(주일) 오후 1시 30분 경동갤러리카페

3. 2020년도 한가위감사절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2020년도 한가위감사주일은 10월 11일(주일)에 온라인으로 주일예배가 진행됩니다.
(‘한가위감사절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한가위’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위 / 헌금 예산: 41,000,000원)

4. 10월 예배 안내 위원

1부: 지 환 집사 · 권영난 권사, 김일수 집사 · 김혜선 집사, 신재준 집사 · 천혜경 집사

2부: 황연성 집사 · 안미경 집사, 김상훈 집사, 강혜수 권사, 홍기종 집사 · 윤혜원 집사

5. 다음 주일(10월 4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박선교 목사	1부	석동은 집사 · 이현숙 권사	2부	권주현 집사 · 김정란 집사

특별봉헌 9월 13일

감사헌금

길지용 · 박경애(감사), 김문식 · 공순복(김우정 혼례 감사), 김병태 · 김수미(감사), 김수평 · 임문규(범사), 박수길 · 김진희(감사), 박찬순(십일조), 방효정 · 권대영(감사), 배우진(감사), 손향옥(감사), 오혜란(감사), 윤기호 · 신은애(감사), 이성준 · 김덕선(감사), 임복기(돌봐주신 은혜), 최영철(감사), 채수일 · 김정숙(범사 감사)

지정헌금

‘코로나19’긴급구호헌금

김문식 · 공순복, 윤기호 · 신은애, 임명자, 최봉덕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마태복음서 14:31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로마서 9:20-21, 24-26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마태복음서 14:22-33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요한1서 1:1-7	생명의 사귄	박선교 목사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교회사무실 T. 02-2274-0161)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주일예배, 수요 성경인물 탐구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코로나19'긴급구호헌금, 목적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구호, ○○○목적

다음 주일 말씀

10월 4일(창조절 다섯째 주일)

성 경: 구 약(출애굽기 20:1-6)

서신서(빌립보서 3:4b-11)

복음서(마태복음서 21:33-46)

설 교: "십계명", 채수일 목사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1.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2.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줄지도 않고 깨어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피 주시네
3.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의 달이 해지 못하네
4.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1.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2.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3.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4.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후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자 그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협약한 세상을 이길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 주모습 내눈에 안보이며 그음성 내귀에 안들려도
내영혼 날마다 주를만나 신령한 말씀 늘배우도다
3. 가는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오실 그날엔 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형상을 다함께 보며 주찬양하리
(후렴)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635장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2020년 한가위 감사절 가정예배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 | 김명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한가위 감사절 가정예배 순서

예배 부름

인 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회 중: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인 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 중: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인 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회 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인 도: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회 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인 도: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회 중: 나의 성상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65:17-25).

찬송

382장(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함께
 1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공동기도

하나님, 한가위 명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기쁨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끝없는 욕망과 탐심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웃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갈라놓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수고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병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 짓는 이들을 보살펴주셔서, 작고 적지만 함께 나누며 기쁨과 희망을 갖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창세기 46:1-7, 28-30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짐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 있구나!”

말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만남’ 인도자

야곱이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 두 아들 중 열한 번째 아들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마음이 불편했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겼습니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솟염소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등에서 주었다며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을 받아 든 다음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찢어서 죽었구나. 나도 따라서 죽겠다”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고,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니다. 가나안 땅에 오랜 가뭄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합니다. 게다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떠나 온 식구가 이집트로 이주해 오라고 했다는 요셉의 말을 전합니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난 20년 넘게 살면서 정들었던 곳, 가나안 땅 헤브론의 삶을 정리하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기쁨이야 말할 수 없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방나라로 간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날 즈음 가뭄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곤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나라 이집트로 간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나이 지금 130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저스럽고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해주시며 또 좋은 것으로 예비해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제 야곱은 재산을 챙기고 이집트의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짐과 손자녀들을 태우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고센 땅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울며, 야곱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한가위 명절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혹시 이웃에 대한 마음까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마스크를 쓴 우리의 일상이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설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요? 추석 연휴기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남과 교제를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고향이란 말의 헬라어는 ‘조국, 본향, 집’이란 뜻을 가진 “파트리스”(patris)인데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pater)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이란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신앙인들이 찾아가는 곳 역시 내 육신의 부모형제와 친척과 이웃이 살고 있는 ‘고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과 정신이 찾는 곳은 육신의 고향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 본향(本鄉)을 찾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 존재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가위 명절은 시간과 공간과 사연을 넘어 헤어진 이들의 만남 특별히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만남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존재됨의 뿌리를 찾고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송

445장(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함께

- 1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않네
-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 3절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기도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